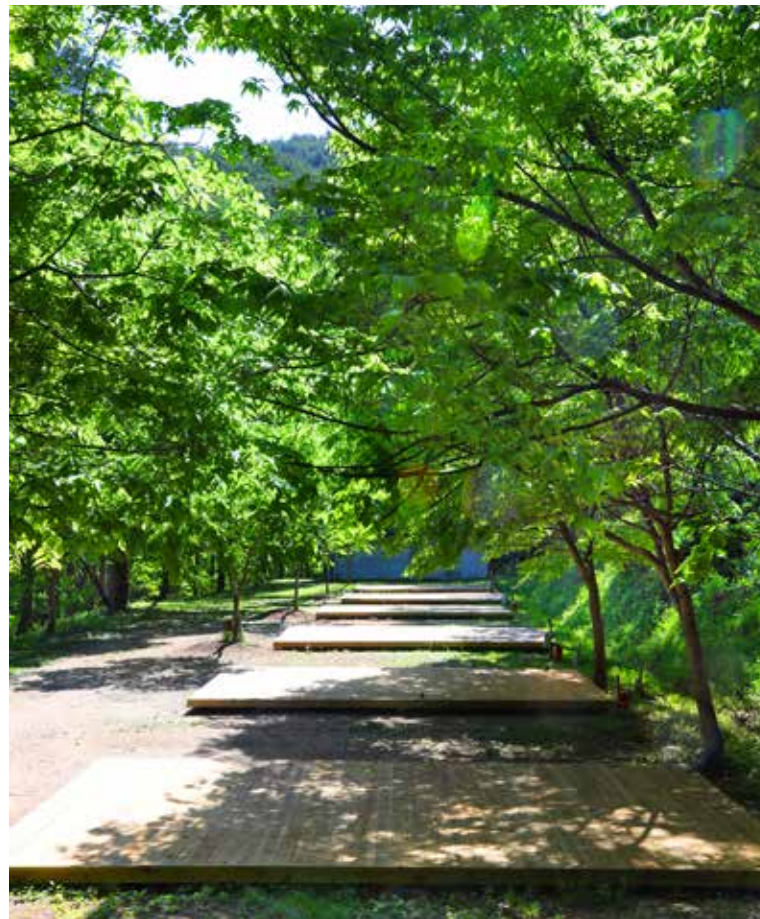


마음의 고향 같은 학가산우래휴양림

한국 40대 명산의 하나로 꼽히는 학가산에 자리 잡은 학가산 우래 자연휴양림에 들어서면 천혜의 자연이 마음의 고향에 온 것 같은 아늑함을 느끼게 한다. 바위틈에 흐드러지게 핀 분홍, 하양, 주홍 등 갖가지 색깔의 철쭉꽃은 휴식의 행복감을 더해 주었다.

글 현경숙 · 사진 전수영 기자



산세가 마치 소백산에서 날아와 앉은 학을 사람이 타고 노니는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학가산이다. 학가산은 서쪽에 예천, 남으로 안동, 북으로 영주에 걸쳐 있다. 해발 882m의 국사봉에 올라보면 산세의 수려함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학가산은 사람의 손길을 덜 탄 소나무, 참나무, 산벚나무가 깃털처럼 우거져 학의 품에 안긴 듯한 편안함을 준다고 일컬어진다.

학가산 봉우리는 예천, 안동, 영주의 세 도시에서 똑같이 15km의 거리에 있어 지역 주민에게는 신비로움의 대상이다. 경북 예천군 보문면 휴양림길 210에 위치한 학가산휴양림은 132만5천㎡ 규모를 자랑한다. 휴양림 중간으로 계곡이 제법 험하게 흘러내린다. 계곡의 흐름이 만든 아기자기한 지형 속에 숙박, 놀이 등의 시설이 숨긴 듯, 드러낸 듯 절묘하게 배치돼 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통나무로 지어진 산장들이 나뭇가지 사이 사이로 보인다. 수십 년 된 듯한 소나무와 키 큰 편백, 참나무 사이에 야외무대, 야영 테크, 캠프파이어운동장 등이 마련돼 있다. 소나무와 편백이 많아서인지 아침나절에는 피톤치드와 테르펜 향이 강하게 느껴졌다.

학가산우래휴양림은 다른 휴양림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생활 방역체제가 시작된 후 숙박객을 받기 시작했다. 이 휴양림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영 휴양림이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카드)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시설은 지어진 지 좀 오래됐다.

한 가족 내지 다섯 가족이 묵을 수 있는 산장이 16동 있다. 한 가족형 산장은 8평, 다섯 가족형은 22평이다. 통나무집 연수관과 센터 하우스가 각각 1동 있는데 센터하우스에는 식당, 매점, 세미나실이 있다. 식당에서 아침 식사도 할 수 있다. 야영 테크 30개, 어린이놀이터 1개, 체력단련장 1개, 물놀이장 2개가 있고 등산로 6km, 산책로 3km가 조성돼 있다.

휴양림에서 학가산 정상까지 오르는 데 2시간 정도 걸린다. 학가산 정상에는 고려 시대 때 지어진 학가산성 터가 있다고 한다. 산성터로 이어지는 둘레길을 만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주변에 가볼 만한 관광지로 예천 온천, 회룡포, 삼강주막, 예천군 충생태원 등이 있다. 예천군 용궁면에 있는 회룡포는 낙동강으로 합류되는 물길인 내성천이 휘감아 만들어낸 옥지 속 섬이다. 내성천은 대표적 감입곡류 하천이다. 회룡포는 영월의 청령포와 함께 특이 지형으로 유명하다. 삼강주막은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삼강나루를 왕래하던 나그네들과 보부상, 사공들에게 숙식처를 제공하던 건물이다. 1900년 무렵에 지어졌다. 건축사적으로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옛 시대상을 보여주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돋보인다. ▼